

(가)의 실험결과와 피험자들이 이익에 있어서는 적은 금액일지라도 확률이 높은 쪽을, 손실에 있어서는 큰 금액일지라도

확률이 낮은 쪽을 택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대 이익이 낮고 기대손실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판단

의 비합리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익 추구에 있어서의 이러한 비합리성은 (나)와 (다)의 제시문으로도 설명된다. (나)의 일본은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다수

열강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항복 또는 전쟁수행을 해야하는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다.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는 쪽을 택했는

데, 그 기저에는 (가)의 비합리성이 내재해있다.

(선택지 각각의 이익을 고려해보면, 항복은 0%의 확률로 이익이 기대되며, 전쟁수행은 선제공격에 성공하여 협상에서 우위

를 점할 수 있게되는 약 70%의 확률로 이익이 기대된다. 따라서 일본의 선택은 높은 확률의 확실한 이익을 추구했다는 점에

서는 (가)와 상통하나 결국 기대이익이 큰 쪽을 선택했으므로 합리적 판단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손실을 고려했을 때는 비합리성이 드러난다. 항복할 경우 100%의 확률로 미국에 복속되며, 전쟁을 벌일 경우 약

30%의 확률로 여러 강대국과의 승산이 희박한 전쟁을 해야한다. 이 때, 기대 손실은 큰 재산과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에

서 후자가 더 크나, 일본은 이를 감수하고 선택했다. 이는 기대손실이 더 큰 쪽을 선택한 것으로, (가)의 비합리적 선택의 양상

을 띤다.

(다)의 을 또한 손실을 회피하고 이익의 확실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실험결과와 맥락이 같다. 희귀한 약초는 큰 이익을 기

대할 수 있으나 구하는데 따르는 위험 부담이 크며 확률 또한 낮다. 을은 이러한 이익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따른 손실의 가능

성을 회피하는 선택인 평범한 약초 캐기를 택했다. 이 또한 (가)의 피험자들이 보인 선택 양상과 동일한 비합리성을 보인다.

한편, 세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비합리성'이라는 개념을 면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결국 합리적이라는 것은 자

신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선택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제시문의 판단 주체들은 모두 상황적 맥락을 고

려한 나름의 합리성을 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보편적 의미에서의 비합리성 개념을 대입하는 것이 도전을 받을

수 있음을 추론 가능하다.